

보도시점 2026. 8. 26.(수) 12:00

배포 2026. 8. 26.(수) 08:00

발일에 무심히 넘긴 고열... “호남권 쯔쯔가무시증 매개체 감시 착수”

- 26년 8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(16주간) 쯔쯔가무시증 매개체 발생 감시 시작
- 가을철 야외활동 후 발열 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

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(센터장 윤정환)는 가을철 쯔쯔가무시증(Scrub Typhus)유행 시기(10월~11월)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에 대한 발생밀도 감시를 8월 넷째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.

「호남권 쯔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 감시사업」은 권역 내 털진드기 발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와 협력하여 사람과 털진드기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환경(논, 밭, 수로, 초지)에서 털진드기를 채집하고 환경별 발생 밀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.

2025년 호남권 2개 지역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16주간 실시한 감시 결과, 활순털진드기와 수염털진드기를 포함한 총 9종 1,822개체의 털진드기가 채집되었으며, 이들의 활동은 12월까지 관찰되었다.

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며, 발열, 오한, 근육통, 발진 증상 및 물린 자리에 가피(검은 딱지, eschar)가 생기는 특징을 지닌 3급 법정감염병으로 연간 6,500여명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.

* '25년 전국 쯔쯔가무시증 사망환자 8명 중 호남권 발생 4명으로 전체 50%

올해도 전국 18개 지점 중 호남권 감시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털진드기 감시를 추진할 계획이며, 분석 결과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방제 및 선제적 감염 예방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.



털진드기 유충 해부현미경사진



활순털진드기 유충 전자현미경사진

윤정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은 “가을철 농작물 추수 및 캠핑이나 단풍놀이 등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와 접촉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음에 따라,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”을 강조하면서,

“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(가피)이 관찰되거나, 10일 이내 발열·발진 증상이 나타나는 등 쯤쯤가무시증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 받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- <붙임> 1. 쯤쯤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 감시사업 개요
2. 최근 5년간 호남권 쯤쯤가무시증 환자 발생 현황
3. 쯤쯤가무시증 개요
4.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

담당 부서	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	책임자	과 장	이육교 (062-221-4140)
		담당자	연구사	박원일 (062-221-4146)

□ **사업목적**

- 호남권 내 쭈쭈가무시증 환자 다발생 지역의 털진드기 조사감시를 통해 매개체 감시 강화 및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

□ **감시지점 및 감시방법**

- (감시지점) 호남권 감시거점 지역(전국 19개 지점)의 논, 밭, 수로, 초지 등 털진드기 다발생 서식 환경



- (감시방법) 지역당 20개(환경 별 5개씩 설치) 털진드기 채집기 설치



□ **조사기간 및 내용**

- (조사기간) 2026년 8월 ~ 12월(1회/주, 16주간 감시)
- (조사내용) 채집기 설치 1주일 후 채집기에 모인 털진드기 유충을 회수하여 털진드기 발생 및 밀도 확인

붙임 2

최근 5년간 호남권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 현황

(단위: 명)

지역	2021	2022	2023	2024	2025
전국	5,915(11)	6,235(20)	5,663(19)	6,268(11)	3,405(8)*
광주	156(-)	178(1)	168(-)	219(2)	124(-)
전북	732(-)	753(1)	728(2)	632(-)	298(1)
전남	1,118(1)	1,023(3)	1,024(3)	1,080(-)	421(3)
제주	37(-)	67(-)	53(-)	51(-)	18(-)

* (): 사망자 수

정 의	□ 쯔쯔가무시균(<i>Orientia tsutsugamushi</i>)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
질병 분류	□ 제3급 법정감염병
병원체	□ Rickettsiaceae과 <i>Orientia tsutsugamushi</i> - Rickettsia(리케치아)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적인 성질을 나타내며, 그람음성 세균의 세포벽을 지니고 항균제에 감수성을 보이고 절지동물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는 특징 - 다양한 혈청형: 국내에서는 Boryong형, Karp형, Gilliam형 등이 존재
매개체	□ 털진드기 유충 - 주요 매개체: 대유탄진드기(<i>Leptotrombidium pallidum</i>), 활순털진드기(<i>L. scutellare</i>)
전파경로	□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사람이 물려 감염 (주로 경작지 주변의 풀숲 및 관목숲에 분포) □ 사람 간 전파 없음
호발시기	□ 10~12월
호발대상	□ 50대 이상
잠복기	□ 10일 이내
임상 증상	□ 전신적 혈관염을 일으키는 급성 발열질환 - 주요 증상: 발열, 가피(eschar), 반점상 발진, 림프절종대 - 심한 두통, 발열,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 - 발병 3~7일 후 몸통·사지에 반점상 발진이 나타나 1~2주일 후 소실 - 국소성 또는 전신성림프절 종대와 비장 비대를 보임 □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 형성이 특징적(진단에 중요) - 사타구니/생식기, 겨드랑이, 오금 등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에서 잘 발견됨 □ 소화기, 호흡기,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음
진 단	□ 검체(혈액, 조직, 가피)에서 <i>O. tsutsugamushi</i> 분리 동정 □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□ 검체(혈액, 조직, 가피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
치 료	□ 독시사이클린,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항생제 치료
치명률	□ 0.1~0.3%(2011~2022년 국내 누적치명률 0.16%)
환자관리	□ 환자격리·접촉자격리: 필요 없음
예 방	□ 위험환경노출 회피: 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-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기, 옷을 벗어두지 않기 - 작업 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,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 신기 -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샤워나 목욕을 하고, 작업복, 속옷, 양말 등을 세탁하기

<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>

○ 야외활동 전

-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,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* 갖춰입기
* 밝은색 긴소매 옷, 모자, 목수건, 양말, 장갑 등
-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
-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

○ 야외활동 중

- 풀밭에 앉을 때 돛자리 사용하기,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,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
-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,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한 주기적 사용

○ 야외활동 후

-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
-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(검은 딱지 등)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
-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



※ www.kdca.go.kr → 알림·자료 → 홍보자료에서 검색가능